



03 서울에서 시작된 갤러리 필리아의 아시아 트릴로지, 〈Human After All〉전

뉴욕, 제네바, 멕시코,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글로벌한 활동을 벌이는 컬렉터블 디자인 갤러리 '갤러리 필리아' Galerie Philia가 지난 3월 5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Human After All〉전을 개최했다. 갤러리 대표이자 큐레이터인 이가엘 아탈리 Ygaël Attali가 기획하고 로컬 파트너 메종 나비와 협업한 이번 전시는 동시대 한국 디자이너들의 작업을 통해 인간적 감각과 산업적 물질성 사이의 긴장을 탐구하는 자리였다. 갤러리 필리아가 서울에서 처음 선보이는 전시이자, 올해 아시아 주요 도시(서울, 선전, 도쿄)를 순회하며 이어질 연속 전시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번 전시의 주요 장면과 이가엘 아탈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시대 컬렉터블 디자인 신을 살펴본다.

큐레이터 이가엘 아탈리 @ygaelattali
현지코디네이션 메종 나비,
maisonnabi.com
참여작가 장혜경 (FICT Studio, 형형신,
이시산, 윤서훈, 스튜디오 차차(차신실), 공민선)
웹사이트 galerie-philie.com

전시의 일부가 된 건축적 맥락

2015년에 설립한 갤러리 필리아는 지난 10여 년 동안 특정한 건축적 맥락 속에서 디자인을 소개하는 전시를 꾸준히 선보였다. 장 누벨의 빌라, 르코브지어의 유니테 다비타시옹, 오스카 니마이어의 니테로이 현대미술관 등 역사적 건축물과 디자인의 관계를 탐구했다. 이번 서울 전시 역시 그러한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 전시가 열린 금호 알베르는 1980년대 대중목욕탕에서 교회로, 최근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장소다. 지하부터 천장이 있는 최상층까지 이어지는 수직 구조와 거친 콘크리트 질감, 자연광이 스며드는 구조는 극적인 무대처럼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동시대 한국의 컬렉터를 디자인

전시에는 장혜경(FCT Studio), 황형신, 이시산, 윤세름, 스튜디오 차차(차신실), 공민선 등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 6명이 참여했다. 이들의 작업은 기능적 가구라는 범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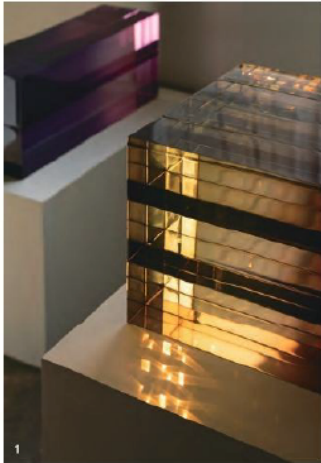
넘어 조형적 오브제로서의 디자인을 탐구한다는 공통점을 지녔고, 이번 전시에서도 각 작가는 전시 공간의 건축적 특성과의 관계를 고려해 작품을 제작했다. 예컨대 황형신은 층층이 쌓인 구조적 형태와 강한 기하학적 리듬을 강조한 대형 펜던트 조명을 통해 콘크리트 건물의 물리적 구조와 공명하는 장면을 연출했고, 그의 작업 특유의 거칠지만 정교한 표면 처리와 반복되는 레이어는 건축적 질감과 시각적 긴장감을 한층 강조했다. 자연과 인공 물질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 이시산의 작업은 돌과 메탈이라는 서로 다른 재료가 결합되는 방식이 자연적 형태와 산업적 가공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며 전시 공간의 거친 구조와 대비되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

전시장 상층부에선 유리라는 섬세한 재료의 실험으로 촉각적 감각을 탐구하는 스튜디오 차차의 작업이 펼쳐졌다. 거울 위에 놓인 유리잔들이 매끈하고 반짝이는 불규칙적 미학을 드러냈다면, 입구에서 만난 공민선의



- 1 금호 알베르 공간의 중앙에 뚫린 공간에 설치한 황형신의 조명과 의자
- 2 스튜디오 차차(차신실)의 유리공예 작품
- 3 이시산의 다양한 작품으로 채운 지하층





설치 작업은 식물을 활용한 거친 재료를 통해 자연의 감수성과 조각적 아름다움의 균형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식물, 금속, 스테인리스 스틸, 석재, 아크릴 레진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실험적 접근이 특히 눈에 띄었다. 차가운 산업적 물질성과 인간의 손이 남긴 흔적이 공존하는 이러한 방식은 동시대 한국 디자이너들의 작업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다. 브론즈나 목재를 주요하게 다루는 동시대 유럽 디자인과는 다른 방향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는 한국 디자인 신의 독특한 경향으로 일한다. 전시 제목 'Human After All'이 시사하듯, 기술과 생산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디자인 환경에서 이러한 문제 의식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물질성과 인간 고유의 감각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긴장은 이번 전시의 핵심 서사이자 갤러리 필리아가 아시아에서 이어갈 전시 시리즈의 출발점이 된다.



- 1 온세움의 아크릴 조각품
- 2 정해경의 레진과 대리석을 결합해 만든 의자
- 3 불투명한 아크릴 소재로 토렴을 형상화한 온세움의 작품
- 4 전시장에 입구에서 보이는 황형진 작가의 조반과 의자. 그리고 식물을 사용한 공민선의 설치 작업



이기열 아티스트
갤러리 필리아 공동 대표이자 큐레이터

“차갑고 기계적인 물질성과 인간적인 감각이 공존하는 것이 한국 디자인의 특징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나?
우리는 항상 전시에 하나의 서사와 주제를 부여하려고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의 새로운 디자이너 세대를 조명하고 싶었다. 참여 디자이너들은 우리가 수년간 함께 작업해온 작가들이며 어떤 작가와는 6년 이상 협업을 이어오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그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오마주이기도 하다.

왜 서울인가?
3년 전 대표적인 서울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 이후 언제가 이 도시에서 다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해왔다. 현재 한국 디자인 신은 매우 역동적이고 독창적이다. 특히 25세에서 40세 사이의 새로운 세대가 디자인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을 유럽이 아닌, 그들의 출발점인 서울에서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한국 컬렉터를 디자인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국 디자이너들은 재료에 대해 매우 기술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새로운 소재를 실험하거나 기존 소재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대량적과

레진을 결합하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매우 산업적으로 보이는 형태 속에서도 늘 수작업의 흔적을 남긴다. 차갑고 기계적인 물질성과 인간적인 감각이 공존하는 것이 한국 디자인의 특징이다.

관람객이 어떤 경험을 하길 바란나?

그저 작품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시 전체의 분위기를 느끼길 바란다. 음악과 조명을 함께 기획하고 동선을 따라 작품을 배치한 이유다. 무엇보다 전시가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경험하길 원했다. 관람객이 이곳을 나설 때 우리가 전달하려 했던 감정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시를 통해 하나의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문화적 맥락 속에서 디자인이 전달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글 양윤경 독신원 담당 김지아 기자

